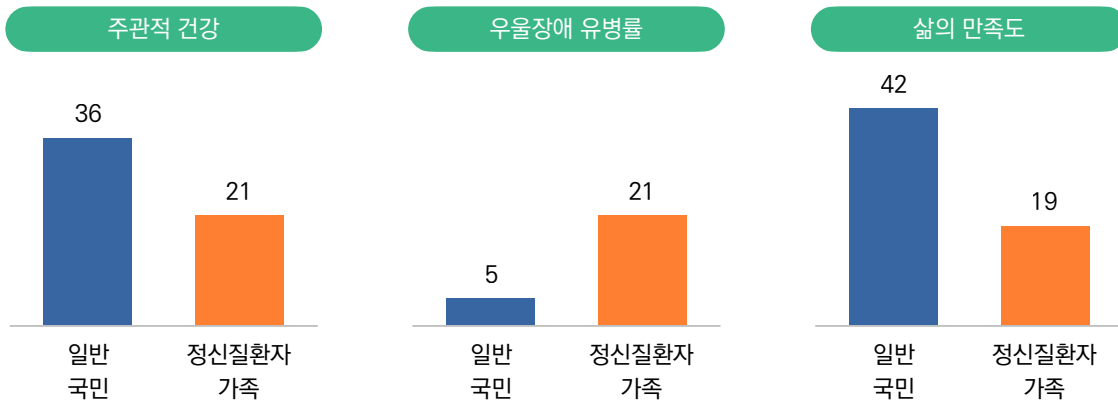




## [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실태]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만족도, 일반 국민 절반에도 못 미쳐

- 보건복지부는 최근 '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'를 진행했는데,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돌봄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.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환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.
- 정신질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도는 21%로 '일반 국민(36%)'보다 크게 낮았고, 우울장애 유병률은 21%로 '일반 국민(5%)'의 4배에 달했다. 삶의 만족도 역시 19%로 '일반 국민(42%)'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.

[그림] 정신질환자 가족의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 (%)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'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', 보도자료, 2024.08.22. (정신질환자 1,078명,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, 우편/온라인 조사, 2023.09.~2024.04.)

Note) 주관적 건강 : '매우+약간 건강' 비율, 5점 척도

삶의 만족도 : '매우+약간 만족', 5점 척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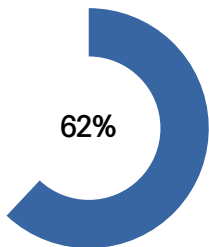
우울장애유병률 : 우울증선별도구(PHQ-9)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비율

##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, '돌봄 부담 크다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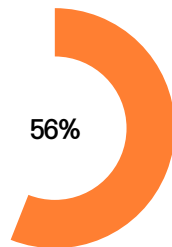
- 정신질환자 가족은 환자 돌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10명 중 6명(62%) 정도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, 56%가 주변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.

[그림] 정신질환자 돌봄 부담 (정신질환자 가족)

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 
환자 돌봄 부담 크다



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친인척,  
친구, 이웃 등에게 차별받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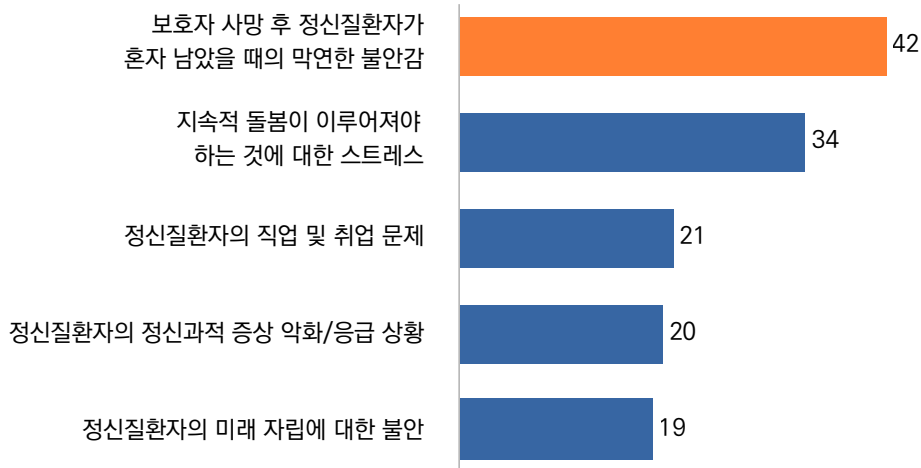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'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', 보도자료, 2024.08.22. (정신질환자 1,078명,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, 우편/온라인 조사, 2023.09.~2024.04.)

##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장 큰 걱정, ‘내가 죽으면 환자는 누가 돌보지?’

- 정신질환자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? ‘보호자 사망 후 정신질환자가 혼자 남았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’이 42%로 가장 높았고, ‘지속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(34%)’가 그다음을 차지했다.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보호자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연속된 돌봄이 정신질환자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다.

[그림] 정신질환자 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 (정신질환자 가족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'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', 보도자료, 2024.08.22. (정신질환자 1,078명,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, 우편/온라인 조사, 2023.09.~2024.04.)